

지원 분야	☐ 교환학생		☐ 중·장기 어학연수		☐ 단기 어학연수	
인적사항	이름		학번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연락처		E-MAIL			
파견 정보	파견 국가	미국	파견 학교	University of Florida		
	파견 시기	2022.08.30. ~ 2022.12.09.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교환학생(만) 필수 작성		교환학생(만) 필수 작성		

체험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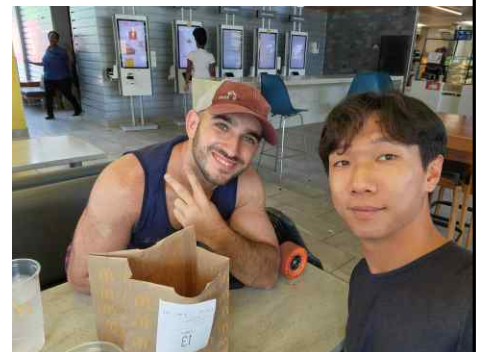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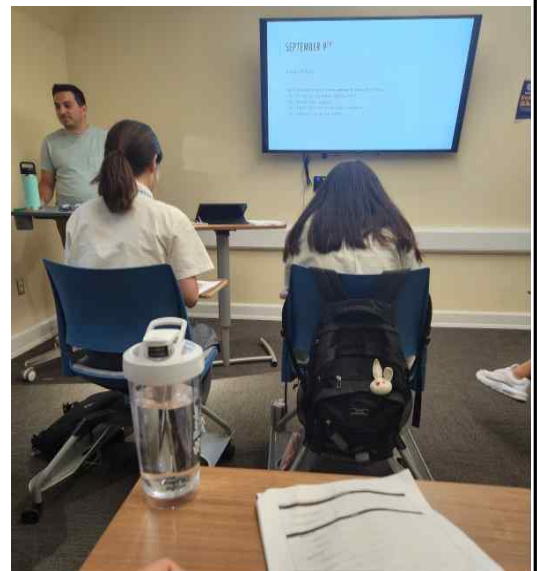
1.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학업 : 첫날에는 우리를 나눠 캠퍼스 투어를 진행한다. 가이드는 University of Florida 학부생으로 우리와 같이 어학연수에 온 다른 나라 학생을 포함해 투어를 했다. 나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학생등 포함된 우리로 10명정도 같이 투어를 했다. 분반을 정하는 방법은 Level Test를 진행해 영어 듣기, 쓰기, 문법 크게 3파트로 나눠 수준별 분반을 정해준다.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생각되면 정정기간에 분반을 조정할 수 있다.

Listening/Speaking 수업은 2시간, **Reading/Writing** 수업은 1시간, **Grammar**는 1시간 진행되며 평균적인 수업 시작 시간은 8시 반, 10시 반, 11시 반 등 다양하다. 시험은 중간고사, 학기 중간 쪽지시험, 출석, 퀴즈 점수, 기말고사 점수 등 반영해서 성적이 부여된다.

활동 : 매주 ELI Activity가 있어 미국 생활에 친구를 사귀고, 미국 현지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로 월요일 Pool Party, 화요일 Volleyball, 수요일 Soccer, 목요일 Coffee Talk, 금요일 Gator Night 등 고정적인 활동이 있지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주말에는 Picnic과 Football, Clearwaterbeach 등 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주어 ELI 기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현지인 멘토(Language Assistant, LA)를 붙여준다. 나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은 아니었지만 영어도 준수하고 취미가 비슷한 멘토를 만나 밥도먹고 클라이밍도하는 등 활동적인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참고로, 실탄 자격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아쉽게 무산되었다.)



체험수기	2. 참가 성과 한 학기동안 영어를 엄청 늘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누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 영어 실력 향상은 편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자신감을 많이 키워줬다. 전에는 외국인을 만나면 완벽한 문장을 말하지 않으면 민망하고 부족해보여 오히려 상황을 피했던 반면, 미국 현지에서 친구들과 대화할때는 친구들의 배려로 더 도전적으로 말하고, 듣고 하며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또, 어학연수를 통해 경험할 수 있던 해외 경험은 가장 귀중한 시간이였다. 현지에서 생활은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외국인 친구와 만나며 영어를 통해 서로를 알아 가는 과정은 영어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또 미국인 친구를 사귀며 현지 영어와 상황에 맞는 표현은 현지 생활에 이점이라 생각한다. 3. 소요경비 학비 포함 여행까지 4달의 기간동안 3000만원의 경비를 소비했다. 학기 이후 3주간 여행을 다녔다. 워싱턴 6일, 뉴욕 9일, 라스베가스 6일, 하와이 경유를 하며 여행 경비가 - 학비 - 4500\$ - 폰요금 - 100\$ (3달 민트모바일) - 주거 - 월 600\$ 정도? - 항공료 : ICN - GNV 190만원, GNV - DCA 25만원, JFK - LAS 50만원, LAS - ICN 120만원 정도 이외에도 식비, 생활비, 여행 경비, 투어비용(자유의 여신상 페리투어,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가이드 투어, 그랜드캐년 투어 등)에 경비를 지출했다. 파견시기에 Halloween과 Thanksgiving, Blackfriday가 있어 여행과 소비가 평소보다 많았고, 플로리다가 여행 할곳이 많아 Disney World & Universal Studio 와 같은 테마파크 여행도 경비 지출이 컸다. 미국 생활하며 느낀 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연수 당시 환율이 정점이라 환율 운이 안따라준 점도 있지만, 제품과 외식 물가가 한국에비해 높아 예상했던 지출보다 많이 커졌다. 식재료의 그램당 가격은 한국보다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외식할 때 메뉴판에 나온가격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아니여서 거기에 택스와 팁이 더해지면 예상보다 가격이 높아졌다. 4.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참가 이후 느낀 점은 후회는 절대 안한다는 점이다. 어학연수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몇 달간 지내는 경험이 나중에 더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생이라는 시기에 학점취득과 해외 연수를 경험하며 인생 가장 뜻깊은 기억이였다. 예상보다 지출은 많았지만 값을 메길 수 없는 경험을 하고왔다 생각해 더 오래 있지 못한게 아쉽다는 생각이 있다. 다른 한인 친구들 중 학기를 연장하고 학부로 전향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 친구들도 이번기회가 삶의 전환점일 수 있겠다 느꼈고, 나 역시 이번 기회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세계 제일의 선진국인 미국 본토에서의 삶에서 현지인들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고 대화하며 삶을 대하는 가치관, 진로에 대한 생각 등 앞으로 삶에 있어 참고 할 수 있었다.
--	---

체험수기	5.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한 학기 남은 학교생활 동안 성적관리에 집중해 졸업시 평균 평점 4점대를 목표로 할 것이다. 학기동안 어학성적 취득을 위해 OPIC을 준비해 볼것이며 진로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도 계획하고 있다. 2) 진로계획 현재 은행 등 금융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취업시장이 어려워지고 IT직무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차선택인 금융 공기업에도 준비할 예정이다. 경제 현황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자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취업스터디를 통해 필기와 면접을 준비해나가며 올해 하반기 취업을 목표로 정진할 것이다. 6.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영어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면 같은 언어권 친구보다는 다른나라 친구를 사귄수록 영어 사용 빈도가 늘어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잡고 갔지만, 현지생활에 적응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한국사람을 찾게 되는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면 한국친구와 외국친구가 섞인 무리를 만들게 되면 영어도 쓰고 하고싶은 말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YF로 가게된다면 차의 유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다르다. 나의 사례로는 차가 있는 한국 학부생과 친해져 그 친구의 외국인 친구들과 만남도 갖고, 여행도 가는 등 영어를 쓰고, 현지 경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이왕 미국에 가게된다면 집에 혼자있는것보다 최대한 나가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돌아 다니는게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간이 갈수록 의지 감소와 귀찮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활동이 줄어들 수 있는데 현지에서 있는 하루하루가 나중에 가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8. 활동사진(2장 이상)

체험수기

